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May your word be fulfilled”
(누가복음 1:26-38; Luke 1:26-38)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물어봅니다.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엄청 많은 노예들을 탈출시켰데.”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구출했을까?” 엄마가 묻습니다. “도망가다가 큰 강이 나오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 갔어.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 오니까 비행기로 폭격해서 모두 다 무찔러 버렸어.”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니?” “아니,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넘친다고... 선생님이 이런 말도 안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 상상해 본거야.”

A mother asked her young son about what he has learned at Sunday school today. “Long time ago, a man named Moses escaped many slaves from Egypt.” “How did he help his people escape from the scary Egyptians’ army?” His mother continued. “On the run, they confronted a big river and made a bridge to cross the river. The aircraft bombed the Egyptian army and killed all of them.” “Did your teacher really teach that?” “No, when Moses struck the sea, the sea was divided. After they crossed the sea completely, the waters rushed back... my teacher made up a story like this, so I pictured it to myself.”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종종 성경말씀을 우리 맘대로, 멋대로 해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서가 이성과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마른 지팡이 하나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누가 복음에 기록돼 있습니다. 바로 ‘임신한 처녀’ (a pregnant virgin)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Like a child who does not believe what his Sunday school teacher said, we quite often do interpret the Bible as we please. Why? The reason is because the Bible sounds like a story beyond our common sense and rationality. There is an incredible story in the Bible more than God split the Red Sea with a stick. A more unbelievable story than this is recorded in the Book of Luke. It is a story of a pregnant virgin. A virgin conceived a baby!

물론 처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즉 법적 처녀, 호적상의 처녀는 임신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입니다. 그런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한 처녀, 수사학에서는 이런 말을 모순 어법 (oxymoron)이라 합니다. 서로 상반된 두 단어가 연결된,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A virgin can be interpreted in several ways depending on how we define the term, “virgin.” A woman who did not get married, a legal virgin can conceive. However, Mary in the text was a virgin who knew not a man. A phrase, “A pregnant virgin” is an oxymoron in rhetoric. It is a rhetorical device that uses an ostensible self-contradiction to illustrate a rhetorical point or to reveal a paradox.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 임신한 처녀 이야기,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뒤집어서 말씀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지 못하면 참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처녀를 믿고 안 믿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이성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안 믿어지는 분들 손 좀 들어 보세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신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The Christianity that we believe starts with a story of this pregnant virgin. To put it another way, if you don't believe today's text, our faith will be shaken from the root. I do not want to say, "Just believe it without questioning it otherwise your faith is not true." Forthrightly, I want to share with you how I understood this text. First, relax yourselves. To believe a pregnant virgin or not is beyond our ability. If you are able to believe it, it is totally God's grace not because you believed it with your logic. If you are not able to believe it at all, it does not matter. I don't want to say,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are not able to believe it.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a Christian? You still do not believe it?"

모태 신앙을 ‘못해 신앙’이라 합니다. 교회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실 때 민감하지 못하다, 이름하여 ‘못해 신앙’이지요. 모태 신앙이 또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난 믿을 수 있어,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것과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임신한 처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그냥 믿는 척 하기 쉽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말씀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해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연극하면서 그냥 믿었습니다. 언제나 연극 중에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는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A mother faith is called "unfaithful faith." We are so used to a church culture that we are not sensitive to His calling. It is unfaithful faith. There is one more thing to point out for unfaithful faith. Even though we cannot believe the Word, we are mistaken by thinking "I can believe it. I have believed it!" The new believers clearly distinguish what they believe from what they do not believe. Some older believers pretend to believe the story of a pregnant virgin to save face. I tell you my story as an example. Every Christmas, I heard the story of baby Jesus at Sunday school and just believed playing it in a drama. The dialog between Maria and an angel in a drama is always as below.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입니다. 철이 없었지만, 이 부분이 연극의 절정임을 눈치챈습니다. 만약 의심하면 불경죄에 걸릴 것처럼 ‘묻지마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제법 머리가 커졌습니다. 임신한 처녀, 모순 어법을 주목했습니다. 그래도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이성 대신에 신앙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종교다원론을 배우고, 예수는 역사적 실재가 아니라는 주장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없다’는 책을 쓴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 (faith about Jesus) 보다는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실재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보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힘으로 희석시키려는 수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It is a dialog between Maria and the angel Gabriel. Even though I was immature, I knew that it was the climax of the drama. I was afraid of being convicted as unfaithful if I doubted it, so I armed myself fully. Later, as I studied the humanities, I was getting more knowledgeable and paid attention to this oxymoron. Gracefully, I experienced the Holy Spirit and believed He is an omnipotent God, so my faith won over reasoning. However, when I entered seminary school, I was getting into trouble. I learned religious pluralism and encountered the claim that Jesus is not a real man in human history. “No such Jesus: Reading Christianity Inside Out” written by Kang-Nam Oh, a professor emeritus at University of Regina is summarized like this. “A true Christian should focus on the teachings of Jesus rather than Jesus himself. H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ith of Jesus” rather than “faith about Jesus.” Some people are trying to challenge us to fade away the name of Jesus with their experience and power of reasoning rather than accepting his reality.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탄생과 부활을 정말 믿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믿는다”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비웃는 눈길로 절 쳐다 보면서 “아직 공부를 덜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책과 씨름하면 할수록 한가지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처녀 이야기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r I do not seek to understand in order to believe, but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For I believe this: unless I believe, I will not understand.” (Anselm of Canterbury) 많은 신앙인들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 또 믿기 위해서 배운다.’ 배움과 믿음을 서로 돕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정녀 탄생 대목에 이르면 배움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공부가 쌓여서 알 수 있고, 그 결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This is a story when I was a pastor. Some pastor asked me to do you believe in the birth of Jesus and revival of Jesus?” I replied that “of course I do” without any hesitation. He told me that you gave me the answer like that because you have not studied it sufficiently yet.” with his eyes laughing at me. I could not sleep well through the night because I was so angry and bitter. Since then, I had one distinct belief as I struggled with books more and more. **The story of the**

pregnant virgin is not the subject that we believe after studying it. According to Anselm of Canterbury testified that “For I do not seek to understand in order to believe, but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For I believe this: unless I believe, I will not understand. Many believers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They also learn in order to understand.’ They think that learning and believing is a mutually helping relationship. However, the passages of the Virgin Mary and the birth do not make certain that learning help them believe that much. It is not the case that we know by accumulating study and making belief as a result.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됩니다. 주님과的人格적인 만남, 어떤 때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님과 제대로 한번 부딪쳐 보셔야 됩니다. 은총의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다리를 놓고 홍해를 건너갔다고 맘대로 각색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맘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편집 비평, 문서비평으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알팍한 지성으로 다시 꿰 맞추기를 시도합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It is possible by overflowing grace of God. We need to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the Lord. Sometimes, we really need to face the Lord completely in a dead-end alley. We can never believe if we have not had a graceful meeting with God. To some degree, it is easy to believe the fictitious scenario describing Mose crossed the Red Sea after building a bridge. There is at least a believable and understandable part in the scenario even though it is not true. It is not right to interpret God’s words arbitrarily because they are not believed. Many biblical scholars tore apart the Bible considerably as editing and literal criticisms. After those, they tried to reformat it again with shallow human knowledge. It cannot be done properly. It is wrong from the beginning. We must kneel to authority of the Bible. You need to pray that God help you believe Words of God if you cannot understand and believe them.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믿고 있는 임신한 처녀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동안 본문이 마음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기다림**’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2 천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정혼한 요셉이 자기는 이 여인의 임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 한 마디만 하면, 곧바로 돌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미혼녀가 흔한 시절도 아니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두려움이 마음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앞서 평안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As I prepared this sermon, I pray about how I can explain what I believe the story of the pregnant virgin well. While I continued to meditate it, I began to summarize the Bible passages in my heart. I came to think of two words, which are “**fear**” and “**waiting**”. In Palestine two thousands ago, a woman who was engaged became pregnant. If the finance, Joseph, stated that he had nothing to do with her pregnancy, the Virgin Mary would be in the situation of being stoned to death immediately. At that time, there were not many single mothers before marriage and

women were not guaranteed their rights in society. Fear was beginning to move into Mary's heart. Rather, fear filled her heart up fully. Angels knew very well about the destructive power of fear. Therefore, they delivered news of peacefulness before she conceived baby Jesus.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v.28)

“Rejoice, favored woman! The Lord is with you!” (v. 28)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가 평안이었던 것처럼 가브리엘의 첫 메시지도 기쁨과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반문 합니다. 이 때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기절초풍할 이야기 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립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얕은 바닷물이 깊은 수영장 물보다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함께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 잡힙니다. 처녀로서 임신한다는 것, 따뜻한 태양을 몇 일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두려움 없이 천사의 말을 처음부터 그냥 받아들였다면 전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Like the first message of the revived Lord was peace, Gabriel's first message was joy and peacefulness. By the way, Mary was so surprised to hear Gabriel's message that she asked, “How in the world does it mean?” Gabriel delivered the same message once more. “Do not fear, Mary! God bestowed you grace. Look! You will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a son. You will name him Jesus.” It was a very shocking story. She was told not to be feared that the virgin would be pregnant. Unseen future always makes us fearful. Shallow sea even makes feel more fearful than deep water in a swimming pool. The reason for it is vague fear that we cannot know and see the depth. Mary could not see anything an inch further when the angel visited her. This fact made her feel fearful. Being a pregnant virgin might shorten her change to see the warm sun, which was enormous fear beyond description. I cannot believe the Virgin Mary if Mary accepted Gabriel's message from the beginning without such fear. Mary was the same human being who feels the same fear as you and me.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상식의 담장을 훌쩍 넘어선,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만두고 딴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데도 자꾸만 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고 같은 성벽이 코 앞에 있는데도 넘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앞서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됩니다. ‘괜히 말씀대로 산다고 우스워지는 거 아니야.’

We feel fear when we cannot hear the God's words because we cannot know how we do and where we go. By the way, we still feel fear when we hear the God's words because human's reasoning and knowledge can never understand them beyond common senses sometimes. We

may hear that God tell us to go to different ways even though we excel in our fields. God order us to keep doing it frequently despite our utter inability and incapability. Even in front of a tall wall like Jericho, God tells us to climb it over. Fear precedes any emotions. We keep an eye on surrounding people's reactions. "It would be a laughing matter as a person who lives just by the Bibl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된다 해도 마리아에게 들려진 말씀, '임신한 처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아야 되는 요구가 바로 임신한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 늘 '못해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결단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피곤과 바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기 싫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내려 놓으면, 점점 하나씩 더, 그래서 결국은 모두 내려 놓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두려움입니다. 임신한 처녀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임신한 처녀 이야기가 믿어질 리 없습니다.

We are not comparable to Mary who heard "the pregnant virgin" even though we hear any messages these days. This is so because the pregnant virgin meant she needed to give up everything, including her own life. However, before the challenge of the God's words, we maintain "unfaithful faith" all the time. We cannot make determination to follow the God's words not because of being tired and busy, but fear. It is the fear that we do not want to let my things go before calling form God. Once we let it go, we do the same one by one and we let go of everything eventually. We worry about it and it makes fear. In fact, the story of the pregnant virgin is story of us. If we cannot obey and say yes to the calling of God, we cannot believe the story of the pregnant virgin.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내려 놓아야 될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돌봐라' 그것도 남들이 다 꺼려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내려 놓는 순간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목회 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께 양보해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후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평안해 보인다고,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을 제가 끌고 가려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달아 붙어 살려고 애쓰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자고 하는 데로 제 마음과 몸을 빌려 드리면 됩니다.

The moment to let go of my study came closely when I studied at my graduate school. And I heard the voice 'take care of my lambs' and even open a new church, which is shun by others. The moment after I stop studying at the graduate school, fear constantly grabbed my heart. It was not because pastoral path would be difficult, but my fearful heart about how much I yielded to God. However, my acquaintances mentioned that I looked more peaceful and better after I started ministry. It was very difficult in the past when I led God. It is very comfortable when I try to live by cling to God. All I have to do is to lend my heart and body whenever and wherever God want.

두려움이 극에 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곧 이어지는 말씀은 마리아의 모든 두려움을 일시에 날려 버립니다.

The angel said to greatly troubled Mary,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holy; he will be called Son of God.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The Holy Spirit, the Most High has dominion over us. It is the grace of Emmanuel.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rotects you and me. The following words erase Mary’s fears at once.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v.37)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v.37)

임신한 처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빼 버리면 소설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동정녀 탄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두려움과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두려움이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It becomes fiction if we eliminate God in the pregnant virgin’s story. For no one can perform such a thing.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If we can believe in this, then we can believe in virgin birth. If we cannot believe in God Almighty, and cannot believe in His greatness, then the virgin birth is an impossible story. The Virgin birth is a story of fear and expectation. Now, Mary’s fears transform into an anticipation.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v.38)

“Here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v.38)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기다림을 혼동합니다. 불안함과 설렘의 변주, 그 이중주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의 반석과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기다림이 늘 힘든 고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해답을 드립니다.

Often times we are confused between fear and expectation. We live in between anxiety and fluttering of the heart. However, true anticipation goes beyond fear. If we believe God is our rock and protector and we wait for God to work within us, then there’s no reason for fear.

‘Here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We can confidently confess this at church but waiting is a difficult task in real life. Why is that? Today’s scripture gives us two answers.

첫째,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욕심, 이생의 자량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 문 밖에 나서면, 걱정거리, 고민거리만 가득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First, we fail to enjoy Emmanuel, the ever-present God's grace, God does not let go of our hands in all circumstances, all conditions in life. It is due to the fact that we are blind with greed and boasting of this life that we fail to look to God. I encourage you to return to God and be in God's embrace. We will be filled with fear and anxiety when we turn away from God and we will tremble in fear.

둘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착각입니다. 기다림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두려움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만이 진정한 소망, 기다림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We must believe that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God's presence and His workings in us is like two sides of a coin. It is not true faith without God's presence. It is a mere illusion. It looks like waiting but it is fear. Only faith in Emmanuel presents us with true wishes and expectations.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십시오.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서, 초조하게 하나님 없이 혼자 상황을 바꿔보려고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포기하기 마십시오. 기다림이 절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꼭 필요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키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지 몰라도, 기다림의 끈을 놓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Do not be anxious of long waiting. Have faith in the times of God. Do not be afraid and do not try to change situations without God's help. Do not give up on waiting. We will recognize how important our God is and how much we need Him when we wait in much anticipation. Waiting does not mean that we are doing something wrong. On the contrary, it means that our faith is growing. A time of waiting, is a time of grace. We may feel that the waiting is difficult and painful but if we are patient and hold on to it, the promise of our God's blessing will surely be with us in our lives.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밤낮으로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고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임신한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변해 기다림이 되는, 눈물과 한숨이 변해 기쁨과 찬양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what have you been waiting for? What are your daily prayers of regrets and hopes? Please be patient. Do not go back to fear. Have a time of lonely hours of

waiting in God. I say it to you again. The story of the pregnant virgin is the story of you and me. It is a story where trouble changes into anticipation where tears and sighs become joy and praise.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v.38, 공동번역)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v.38, NIV)

‘Fiat mihi,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대강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May it be as you have said.’ It is the word of God given to us at first week of Advent.

May God's words be with you, my beloved congregation, on your family, your work and all walks of your life.